

아름다운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오프닝 무대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재단 10주년 기념...시낭송·재즈·무용 등 최장군·정아름·클라라·리디안팩토리 출연

광주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프닝콘서트'로 올해 월요콘서트를 시작한다.

월요콘서트는 지역 예술인·단체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올해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주제로 펼쳐진다. 오는 29일부터 11월 15일(6-8월 하절기 제외·총 20회)까지 매주 월요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오프닝콘서트'는 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재단 직원들의 시낭송으로 시작하며, 기타·첼로·피아노 연주와 재즈, 성악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시낭송 시간에는 유은형 팀장과 박준우 대리가 푸시킨의 '살의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낭송한다. 이어 빌라 로보스의 '아리아', 무소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2·3·5·6번', 파가니니의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치오 op.1', 스페타나 교향시 '물다우',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 이기경 곡 '가기', '오페라 유령' 삽입곡 등을 피아노, 클래식기타, 첼로 등의 연주로 들려준다.

또 이묘숙 사무처장이 이해인의 '봄날같은 사람'을 낭송하며, 피날레는 김민기의 '상복수'로 장식한다.

공연은 광주 MBC 김두식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며 클래식 기타 김현규, 첼로 정아름, 피아노 듀오 클라라, 리디안팩토리, 앙상블 내셔널필하모니, 댄서 최장군, 소프라노 남현주 등이 출연한다.

두 번째 월요콘서트는 랑 현악사중주단의 '낭만에 대하여'(29일)이며, 더클래식 아우름의 '세계명곡시리즈'(4월5일), 내셔널 필하모닉의 '첫 사랑의 설레임 로망스'(4월12일), 나투어 라루체의 '로맨틱 멜로디'(4월19일), 광주성악가협회의 '낭만의 숲을 거닐다'(4월26일)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보컬트로 예술기획, 칸타레앙상블, 프로젝트더울림, 레인뮤즈, 라인콤팩트, 그레이스플루루앙상블, 브래싱, 앙상블 슈필렌 등의 공연도 펼쳐진다. 무료관람 문의 062-670-792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남현주



김현규



정아름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 위로 '희망콘서트' 25일 순천문화예회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봄의 소리 왈츠' 등 연주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 성악가 김기훈·홍혜란·이현 공연



이상 엔더스



김기훈



홍혜란

소프라노 홍혜란, 바리톤 김기훈,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 등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스타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순천에서 댄스했다.

'2021 희망의 콘서트'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순천문화예회관에서 열린다.

첫 무대는 지휘자 안두현이 이끄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차이코프스키 '안단테 칸타베레', 요한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등이다.

이어 한국계 독일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는 하이든 '첼로협주곡 제1번'을 연주한다. 오르가니스트인 독일인 아버지와 작곡가인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스무 살이던 2008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에서 최연소 첼로 수석이 돼 주목받았다. 현재는 솔로 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곡성 출신 바리톤 김기훈의 무대도 눈길을 끈다.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한 김기훈은 이날 율하준 '잔향',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마을의 제일인자'로 관객과 만난다. 김 씨는 연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하노버 음대 석사졸업 후 같은 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밟고 있다.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남자성악 부분 2위와 2019년 오페랄리아 2위와 청중상을 연이어 수상했으며, 최근 곡성군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쥔 소프라노 홍혜란도 무대에 오른다. 홍 씨는 이날 조두남의 '산촌'과 요한 스트라우스의 '친애하는 후작님'을 들려준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중심으로 주요 오페라 극장 솔리스트로 활약 중인 홍 씨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친다.

테너 이현은 김동진희의 '목련화', 쿠르티스의 '물망초'를 준비했다. 순천에서 태어난 이 씨는 현재 영남대 성악과 교수 겸 영남대학교 감성연구소 오페라 아카데미 센터장으로 활동중이다.

공연의 대미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Music of spring'으로 장식한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미안마 응원 릴레이 연대서 <5>

미안마 시인 틸 샨니 씨와 그의 조국의 안녕을 기원함

고재종

오 척을 갖 남은 미안마 시인 틸 샨니 씨는 한마디 질문에 열 마디 대답을 했다 미안마 국민시인이라 해도 장가도 갈 수 없었던 가난한 조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와 군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해

커미 풍무에서 흘러나오는 실처럼 끊임없이 돈도 없이 스님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조국. 그러나 아홉살 수치가 이끈 민주화에 대해 식민통치 관리를 위해 영국이 데려왔던 로힝야족에 대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열변을 토했다 2018년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때 초대 손님으로 온 오 척 단구 미안마 시인 틸 샨니 씨는 오로지 시 하나로 세우는 조국의 미래에 대해 이제 아름다운 서정시를 쓰고 싶다는 꿈에 대해

지금도 그는 미안마 어디에선가 부단히 외치리라 선거를 통해 단 한줌의 악의 세력으로 판명 난 실권과 이권을 모두 잃게 된 군부 쿠데타의 반동에 대해 또다시 사라지게 된 미안마의 봄과 봄 햇살 같은 국민의 희망과 생명,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장가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던 조국을 찬양하던 시에 총알이 박힐 것을 기도하리라 정의가 살아 있는 한 조국은 안녕할 거라고 아름다운 시 하나가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신동엽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수상 ▲시집 '고요를 시 청하다' 등 다수

문예위, 23~24일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위원장 박종관)는 한국 예술의 국제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한다.

'다시, 연결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예술위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의 해외파트너인 영국예술위원회, 주한독일문화원, 덴마크문화원,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및 해외 온라인 생중계되며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랜선 관객을 모집 중이다.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혜원 작가 '내가 본 얼굴들' 초대전 28일까지 양림미술관

나혜원 작가의 작품 테마는 '자화상'이다. 인간의 신체 부위 가운데 아이덴티티(Identity)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확고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무한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무의식에 기초한 자화상을 그려왔다.

나혜원 작가 초대전 '내가 본 얼굴들'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그녀가 10여년에 걸쳐 그린 다양한 느낌의 자화상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나 작가는 숨어 은둔하는 히키코모리 생활이나 초창기 말이 통하지 않는 독일에서 완벽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언어나 접촉이 관계 맺음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럴 때마다 자화상을 그리곤 했는데 캔버스 속 인물은 자신인듯 친밀했지만, 또 다른 사람처럼 낯설어지기도 했다.

놀란 표정의 자화상이나 눈을 지긋이 감은 모습이나 파란 머리띠를 한 모습 등 그의 자화상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누군가의

삶을 만날 수 있다.

독일 드레스덴 조형예술대에서 복합실용 회화 학사와 입체조형예술 석사 과정을 마친 나 작가는 에라스무스 재단 장학금을 받았다. 올해 서울에서 'Bincan 빈칸'전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파리,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에서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독일 베를린과 담양 작업실을 오가며 작업 중인 나 작가는 그림과 연결을 주제로 설치와 회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놀란 자화상'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